

전주시, 청년 친화적 지역사회 만든다

8개 기관·기업과 청년 성장 지원 위한 협약식 가져… 전문가 상담·자기계발 위한 프로그램 제공

전주지역 8개 기관이 청년이 찾아가고 머물고 싶은 전주를 만들기 위해 청년들의 성장을 돕고, 이들이 직면한 다양한 고민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했다.

14일 전주시에 따르면 청년이음전주에서 전북여성가족재단 등 8개 기관 및 기업과 청년들의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청년 친화적인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청년 성장 지원'을 위한 협력 기관·기업 협약식'을 가졌다.

이날 협약에 참여한 기관·기업은 △전북여성가족재단(전북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주YWCA여성인력개발

센터(전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전주시주거복지센터 △전주덕진지역자활센터 △법률사무소 한서 △배움아카데미 △JS 컨설팅연구소 등 8곳이다.

이들은 올 연말까지 청년이음전주에서 전주시에 거주하는 18세~39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청년들의 고민 해소를 위한 전문가 상담과 자기계발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참여 기관·기업이 지난해보다 두 배 늘어남에 따라 청년들을 대상으로 더욱 다양한 일자리 상담 및 자기계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

게 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전주시 청년센터인 '청년이음전주'에서 첫선을 보인 '청년 성장을 위한 지역자원 연계 사업'에는 총 4개 기관·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트락트닥 마음상담소(스트레스, 우울감 자가 진단 및 상담) △청년고민 상담소(취업컨설팅, 주거복지, 생활법률 상담) 등이 총 24회 운영됐으며, 144명의 청년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시는 참여 기관·기업이 두 배로 늘어난 만큼 약 500명의 청년들에게 고

구상이다.

시는 이번 협약식을 토대로 지역 내 청년 유관기관 간 청년 관련 사업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가 구축되고, 지역에 대한 청년들의 관심도 높아져 청년 친화적인 도시로 나아가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청년의 성장 지원을 위한 지역의 연대와 관심이 있어야 청년이 지역에 머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의 미래인 청년이 성장하고, 찾아오고, 머물 수 있는 전주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형 내일채움공제’ 모집

18일까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근로자 대상 신청 접수

전주시가 지역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목돈마련을 돕기로 했다.

시는 14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의 참여대상자를 모집한다.

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공제부금이 기존 총 840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줄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전주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는 3년 이상 재직할 경우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의 참여대상자를 모집한다.

전주형 내일채움공제는 시가 지난 2023년부터 추진해온 중소기업 고용 유지 지원사업으로, 올해는 중소기업의 공제부금 부담을 낮추기 위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과 협약을 맺어 전라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로 진행된다.

이번 전라산업특화 상생협력형 공제를 통해 전주형 내일채움공제의 가입기간이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됐다.

또한 기업부담금 월 24만 원 중 전주시가 월 10만 원씩 단독 지원해준던 기존 방식에서 2년간 기업 부담금 전액을 전주시와 중진공이 공동 지원하고 2년이 지난 뒤에는 월 10만 원씩 전주시가 단독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올해에 따라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공제부금이 기존 총 840만 원에서 168만 원으로 획기적으로 줄어 기업의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전주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근로자는 3년 이상 재직할 경우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전주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의 참여대상자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에 소재한 30인 이하 제조업 중소기업이며, 3년 이상 장기재직 가능한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올해 모집인원은 22명 이내이며, 기업별로 최대 2인까지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시는 이번 신청 기간 내 모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오는 5월부터 매월 1일에서 10일까지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구비서류 안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의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전주시 기업지원과(063-281-5174) 또는 중진공 전북지역본부(063-210-9922, 9927)로 문의하면 된다.

/권희성 기자

‘시민 안전 최우선’ 집중안전점검 실시

전주시, 공사현장·숙박시설 등 18개 분야 100곳 대상 민·관 합동점검반 운영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한 전주시가 안전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이어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시는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61일 동안 '2025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이번 점검은 각종 시설물 결함과 생활 속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개선하고, 시민들의 자율 안전점검 참여를 유도해 일상 속 안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예방 중심의 활동이다.

시는 올해 공장과 요양시설, 공사현장, 숙박시설 등 18개 분야 100곳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2025년 집중안전점검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공무원과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정한 전주시가 안전사고 발생시 대규모 인명·재산 피해를 이어질 수 있는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나선다.

건축·토목·전기·가스·소방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민·관 합동점검반을 운영한다.

이와함께 열화상카메라와 가스누출 탐지기 등 각종 전문장비를 활용해 점검의 정확성과 신뢰성, 전문성을 높일 방침이다.

또한 시는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각 가정과 다중이용시설에 자율점검표를 배부하고, 개인 소유 시설이나 구조물에 대해 자율 안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중대한 결함이나 위험 요소가 발견될 경우에는 보수·보강과 정밀안전진단, 사용 제한 등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이번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위험 시설을 체계적으로 점검·관리하고, 위해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시민의 안전을 적극 보호하겠다"면서 "시민들께서도 주변의 안전 요소를 살펴보고 위험 사항 발견 시 '안전신문고 앱'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가 14일 전주시 진북동에 위치한 전주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전주시, 정리수납 교육생 현장실습 봉사활동 펼쳐

전주시는 14일 정리수납 봉사자 양성 교육과정 교육생들이 주거공간 정리·정돈이 필요한 노인가구를 방문해 현장실습 2회차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정리수납이 필요한 주거취약가구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돕기 위한 '주거공간 정리수납 봉사단'을 구축·운영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2회의 이론교육(14시간)과 2회의 현장실습(8시간) 등 총 4일 과정으로 정리수납 전

문지식 및 기술 습득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교육생들은 정리되지 않은 주방·안방 등에 다양한 수납 도구 및 재활용 소품을 활용한 정리법과 사용 빈도에 따른 물품 정리법 등 집안 환경을 효율적으로 정리하는 방법들을 배우며, 노인가구의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리고 정리하는 등 노인가구의 쾌적한 주거생활 공간 조성을 도왔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 서신동 지사협, 취약계층 영양간식 지원

전주시 완산구 서신동(동장 김은성)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유현숙)는 14일 서신동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간식 지원사업을 시작했다.

이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영양음료(뉴케어) 지원사업'은 2025년 동네복지 신규 특화사업으로, 저작기능저하 어르신 및 만성질환을 가진 관내 영양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총 40가구에 영양간식을 지원해 줄 예정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시의회 행정위, 자원봉사센터 현장행정

전주시의회 행정위원회(위원장 최용철 의원)가 14일 전주시 진북동에 위치한 전주시자원봉사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향후 계획 등을 점검했다.

최용철 위원장 등 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센터 내 주요 시설들을 둘러 보며 운영 프로그램 및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또 특화교육 체험인 제빵 활동에 직

접 참여해 이웃들에게 전달될 머핀 400여개를 직접 만들고 포장하는 봉사활동도 함께했다.

최용철 위원장은 "지역 사회 발전과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원봉사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손길이 닿지 않는 이웃들이 있는지 현장에서 발로 뛰는 행정위원회가 되겠다"고 말했다.

/권희성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학회경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최유현 광동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漢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직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제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경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질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제단은 조선 무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우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출: 문화재청 제공>